

## 보도자료

2010년 5월 4일(화)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전파연구소 기준연구과 위규진 과장(☎710-6550)  
기준연구과 이경희 연구관(☎710-6590) ijuni@kcc.go.kr

# 모바일 IPTV 국제표준화 선도 기반 마련

## - 모바일 IPTV 국제표준과제 채택 및 에디터 수입 -

우리나라가 제안한 모바일 IPTV 표준화 과제 2건이 ITU-T 국제표준 개발 신규 과제로 채택되고, 에디터를 수입하여 모바일 IPTV 국제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한국ITU연구위원회(위원장 : 임차식 전파연구소장)는 2010년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표준 섹터 (ITU-T) 제13연구반(SG13) 회의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김홍남)이 제안한 모바일 IPTV 서비스 시나리오 및 기능요구사항에 대한 과제 2건이 프랑스, 일본, 중국 등의 지지를 받아 국제표준 개발과제로 채택되었으며, 강신각 팀장(ETRI 융합통신표준연구팀)이 표준개발 과제 책임자인 에디터로 선임되었다고 밝혔다.

모바일 IPTV는 개념 및 범위에 대해 아직 국제적으로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제공되고 있는 유선 IPTV 서비스를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이동 중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와, 유선 IPTV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이동시 모바일 기기를 통해 끊김 없이 해당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3-스크린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현재 다양한 모바일 IPTV 서비스 유형 들이 개발되고 있는 단계이다.

이번에 국제표준개발 과제로 채택된 “모바일 IPTV 시나리오 및 유스 케이스”는 모바일 IPTV 서비스의 개념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 유형 및 비즈니스 모델 등을 정의하여, 세부 기술표준 개발을 위한 요구사항 및 표준화 항목을 도출하도록 하는 가장 상위의 표준이다.

또 다른 과제인 “모바일 IPTV 기능 요구사항”은 네트워크, 서비스제어, 이동성, 음성 및 영상 부호화, 보안, 서비스품질 등 모바일 IPTV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구되는 세부 기능적 요구사항들을 정의함으로써 세부 기술표준 개발을 위한 지침으로 적용되게 된다. 이들 2개 신규 과제는 향후 주요 이슈별 모바일 IPTV 기술표준 개발을 위해 공통적으로 적용될 표준으로, 본격적인 모바일 IPTV 기술표준 개발을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표준이다.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IPTV에 대한 관심과 국제표준 정립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이 모바일 IPTV 국제표준개발 과제를 제안하고 에디터를 수입함으로써 향후 국내 개발 기술의 국제표준 반영 및 국제표준화 작업을 선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용어 설명]

- o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국제전기통신연합): UN 산하 전문기구 중 하나로, 산하에 T-섹터(전기통신), R-섹터(무선통신), D-섹터(개발도상국 지원)로 부르는 세 개의 세부조직으로 구성되며, 이중 ITU-T는 전기통신 분야의 국제표준을 개발하는 조직이다. 끝.